

기호학적 행위와 양태성*

송치만**

【 차례 】

- I. 서론
- II. 양태성의 기본 개념
- III. 기호-서사적 행위의 추동과 변형을 위한 양태성
 - 1. 계약과 양태성
 - 2. 서사적 주체의 능력을 보장하는 양태성
 - 3. 양태성을 초한정하는 양태성
- IV. 결론

국문초록

파리학파의 기호-서사학은 이론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발전해왔고 그 역사에서 양태성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레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사문법의 발전은 양태성 개념의 고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의미생성행로의 서사층위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서사도식과 양태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장르의 서사분석에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서사도식의 조종과 능력의 단계에서 양태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실제적인 분석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다양한 행위소 역할의 관계가 양태성을 매개로 해서 서사적 행위로 전개된다. 초기 이론의 /의무/, /의지/, /능력/, /지식/의 양태성에 /믿음/의 양태성이 추가되면서 기호학적 행위가 전개되는 방식이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분석의 효율성도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계약에서 /의무/, /의지/의 양태성이 주체의 구성과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기존 이론이 간과한 부분을 짚어보았다. 능력의 확보 과정에서 /능력/, /지식/의 양태성이 기존 이론의 단점을 극복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limoges@konkuk.ac.kr

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분석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믿음/이 두 유형의 양태성과 맺는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서 기호학적 행위의 구성 조건을 다시 살펴봤다. 결국, 서사도식과 양태성의 상호적 이해만이 이론의 완결성뿐만 아니라 분석의 효율성도 보장하는 것이다.

열쇠어 : 서사도식, 양태성, 기호학적 행위, 계약, 능력

I. 서론

양태성(modalité)의 개념은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 서사적 역할을 설명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개념의 도입 이전까지 파리학파의 기호-서사학은 행위소(actant)들 간의 관계 특히 행위소적 역할들의 관계와 사행을 통해 서사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동안 널리 활용되었던 행위소모형은 개념의 단순성으로 인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세 쌍의 행위소가 서사적 변형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한가의 문제와 더불어 분석 테스트에 존재하는 다수의 서사적 변형 만큼의 행위소모형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중심 서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분석 도구로서의 보편적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론적 진전과 더불어 서사도식(schéma narratif)이 등장했고 이는 서사적 변형의 복잡한 전후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체의 서사적 행위가 진행되기 위한 계약과 그에 대한 상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서사도식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이론적 보편성을 증명해낸다. 이론이 정교하게 보완되고 완성되어 간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머물기보다 어떤 부분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것이 의미 있어 보인다. 서사도식이 정교화되면서 서사적 주체는 서사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서사적 단위마다 주체의 역

할이 달라지고 다른 행위소와의 관계도 복잡해진다. 다시 말해 서사도식의 논리적 단계에서 주체의 서사적 역할의 위상은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양태성이라 할 수 있다. 양태성은 주체의 행위가 추동되어 유지되고 실현되기까지의 행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체의 서사 행로가 완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짚어본 바와 같이 양태성은 파리학과 기호-서사학의 이론적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태성의 구성원리나 유형화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양태성이 기호사각형에 투사되면서 발생하는 논리적 분절과 그 사용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동시에 복잡화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의미이다. 개념의 중요성과 활용의 어려움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기호-서사학에서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성의 개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면 그 활용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서사도식의 구성 논리 안에서 양태성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주체의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아울러 분석에서의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효과도 겨냥한다. 기호-서사학 이론의 환원적 성격으로 인해 분석이 단순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분석의 서툰이 이론의 한계로 치부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사 층위의 분석은 여전히 추상적 단위들을 조작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분석 과정의 치밀함이 동반되면 언제나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오히려 이론의 몰이해가 분석의 표류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천착하면서 기호학적 행위와 양태성의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이론의 적절한 재구성과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론의 이해를 돕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II. 양태성의 기본 개념

그레마스Algirds Julien Greimas는 기호-서사 문법의 고안이 양태 문법의 고안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 서사 행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태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파리학과 서사 문법의 완결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서사도식에서 서사적 변형 과정이 양태성과 어떤 연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중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서사도식의 체계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양태성의 복잡한 개념을 상세하게 짚어보는 일은 많은 지면을 요구한다. 다행히도 서사도식이나 양태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참조할 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서사도식과 양태성의 연구가 별개로 진행된 인상을 받기도 한다. 서사적 변형을 추구하는 주체의 행위가 양태성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이 분석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 분석의 어려움을 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사적 변형과 양태성의 상관성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우선하여 양태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 상황에서 이 개념이 서사도식에 비해 분석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을 다소 양태성에 맞추고자 한다. 1979년에 출간된 기호학 사전²⁾에서 양태성에 관한 정리된 개념을 만날 수 있다. 사전에서

1) Algirdas Julien Greimas, *Du sens II*, Paris, Seuil, 1983, p.115.

2)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양태성에 관한 거의 완성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 논의에서는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언어학의 구상에서 차용된 양태성은 기본적으로 술어를 변모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호학은 언어 텍스트를 초월하는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념의 발전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서사적 변형이라는 것은 상태 주체와 대상 간의 접합 양상을 전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호-서사학적인 관점에서 서사적 언표는 상태 언표와 행위 언표로 구분된다. 양태성은 이렇게 상태와 행위를 한정하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상태(être)/와 /행위(faire)/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태화(modalisation)는 서사의 통사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행위/가 /상태/를 양태화 한다면 수행(performance)이란 서사적 단위를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서사적 변형의 가장 기본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태/가 /행위/를 한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서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compétence)이라는 서사 단위에 상응한다. 세 번째로 /상태/와 /상태/ 간의 양태화도 가능한데 이는 진리검증(véridiction)의 양태화라 할 수 있다. 존재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양태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행위/가 /행위/를 양태화하는 경우로 이는 사역적 행위를 떠올릴 수 있다. 주체에게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송출자의 조종(manipulation)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언표를 대상으로 취하는 양태성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양태성의 대상 언표는 /행위/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비록 언어학적 기원을 갖지만 문장 수준을 넘어서는 담화 기호학에서는 이러한 두 대상 언표를 양태화하는 네 가지 양태성을 제안한다. /의무(devoir)/, /의지(vouloir)/, /능력(pouvoir)/, /지식(savoir)/이라는 네 가지 양태성은 존재 방식에 따라 전자의 둘은 잠재적이고 후자의 둘은 현실적이라 구분할 수 있다. ‘잠재적’이라는 말은 송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체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9, rééd. 1993, pp.230~232.

가 성립되었으나 아직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메타언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은 능력의 단계에서 수행으로 이행 할 수 있는 주체의 상태를 일컫는다. 사전에서는 또 하나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무/와 /능력/은 두 주체 간에서 작동하고 /의지/, /지식/은 동일한 주체가 개입하는 경우에 작동하는 양태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된 메타언어의 변화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외’와 ‘내’의 용어는 외부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주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요약된다.³⁾

양태성	잠재적	현실적	실현하는
외분류적 ⁴⁾	/의무/	/능력/	/행위/
내분류적	/의지/	/지식/	/상태/

네 가지 양태성이 행위 또는 상태를 한정한다고 가정하면 총 8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양태성을 기호사각형에 투사하면서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의 서사적 행로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여덟 개의 기호사각형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양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지면을 요구한다.⁵⁾ 더군다나 본 연구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양태성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Du sens II*⁶⁾에서 그레마스는 양태성의 개념을 정교화한다. 능력과 수행의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에서는 잠재적인 양태성과 현실적인 양

3) *Ibid.*, p.231.

4) 그레마스는 *Du sens II*에서는 ‘내재적’, ‘외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양태성의 기호사각형은 기호학 사전과 더불어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Algirdas Julien Greimas, *Du sens II*, Paris, Seuil, 1983, pp.67~91.

6) *Op. cit.*, pp.67~91

태성이 문제 되고 수행에서는 실현의 양태성이 문제 된다. 잠재적인 양태성은 /의무/와 /의지/의 양태성으로 주체가 구성되게 해주는데 아직 실제적인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이라는 말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어서 /능력/과 /지식/은 주체의 능력을 보장해서 현실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양태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서사도식의 논리적 구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통합체적 구성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능력/의 획득을 기술하는 담화에서 /의지/의 양태화 없이 /능력/이 부여되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서사적 구성에 대한 고민보다 양태성의 유형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⁷⁾ 서사적 구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레마스는 계약의 단계에서 개입하는 양태성의 통합체적 구성에서 어느 것에 우선권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계약을 구분하는데 /의무/에 우선권이 부여되면 명령적 계약(contrat injoctif)이라 하고 /의지/에 우선권이 부여되면 승인적 계약(contrat permissif)이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그레마스는 여러 차례 양태성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움과 당시 상황의 한계를 언급한다. 그로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정적인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그는 양태성의 유형학을 세우기 위한 흥미로운 시도를 하는데 앞서 언급한 여덟 개의 양태성의 기호사각형에서 상동화가 가능한 메타항들을 도출한다. 그 메타항들을 바탕으로 기호사각형을 중첩시킨다. 예를 들자면 /의무-상태/의 기호 사각형에 /능력-상태/의 기호사각형을 중첩시키고 이어서 /의무-상태/를 그대로 두고 s1의 자리에 /능력-상태/의 네 가지 가능한 양태성을 바꾸어 가면서 그 조합 가능성을 타진한다. 동일한 작업을 /의무-행위/와 /의지-행위/의 경우에서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의무-행위/와 /지식-

7) 생래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주체가 능력의 양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례는 쉽게 발견된다.

행위/의 경우에서도 진행한다. 서사적 진행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고 조합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시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네 가지 양태성 외에 또 다른 양태성을 추가해야 하는지의 의문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양태성으로 기호학적 행위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담화가 세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촉발되었고 인지적 차원에서 성과로 이어진다. 계약의 단계에서 송출자의 설득행위와 수령자의 해석행위가 인지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새로운 양태성을 도입하여 인지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믿음/의 양태성은 이미 양태화 된 술어를 양태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데 특징이 있다.⁹⁾ 서사적 행로에서 계약의 과정은 주체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레마스가 지적하듯이 계약은 단순하게 임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임무를 수임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이 설득을 위한 인지적 차원의 소통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면 /지식/의 양태성 뿐만아니라 /믿음/의 양태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믿게 하기(*faire-croire*)/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믿음(*croire*)/과 /지식/이 인식의 세계에서 공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설득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득의 행위소적 역할을 수임하는 송출자가 수령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양태성을 동원한다. /지식/에 기반을 둔 유혹에 의지하거나 /능력/에 기반을 둔 협박에 의지할 수도 있다. 인지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

8) *Op. cit.*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2~90쪽을 참조 할 수 있다.

9)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tome 2, Paris, Hachette, 1986, p.142.

는 그레마스는 /지식/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인지적 차원에서 수렴자를 설득하는 행위는 결국 두 행위소간의 인식적 놀이로 귀결된다. 논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놀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양태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인식적 행위가 서사적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이 상대가 부인하던 것을 긍정하게 하거나 긍정하던 것을 부인하게 하는 행위라면 결국 이러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은 /지식/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지식에 대한 /믿음/, 즉 상대의 지식이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에 상응한다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적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그레마스는 논의의 상당 부분을 /지식/과 /믿음/의 의미론적 규명에 할애하고 있고 서사적 행로에서 두 양태성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좀 더 후에 서사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으로 돌아올 것이다.

양태성에 대한 모든 논의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주제에 상응하는 한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담화의 기호학을 주창하는 폰타니유 Jacques Fontanille는 기존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표준이론이라 부르는 초기 이론을 담화 기호학의 도입을 통해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양태성의 개념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기존의 개념을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폰타니유 역시 다른 술어의 위상을 변모시키는 것이 양태성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¹⁰⁾ 그는 양태성과 술어와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제시한다. 양태성은 양태화 된 술어에 의해 전제되기 때문에 담화 기호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제된 서사적 단위가 중요성을 부여받기 마련이라는 논리이다. 서사적 행위의 실현 조건으로서 양태성은 ‘술어적 장면(scène prédicative)’¹¹⁾이라 할 수 있는 사행 전체에

10) Jacques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Limoges, PULIM, 1998, p.163.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양태성이 술어와 그것의 행위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양태성이 술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서사적 변형을 유도하면서 관련된 행위소의 정체성 형성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퐁타니유는 양태성과 관련하여 기존 이론을 정리한 유형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²⁾

	잠재화된	가능화된	현실화된
	동기	신념	적성
주체/객체	/의지/	/믿음/	/지식/
주체/삼자	/의무/	/지지/	/능력/

/의지/와 /지식/은 주체와 그가 추구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변모시킨다. 이 관계는 /믿음/에 의해서도 변모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무언가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의무/와 /능력/은 주체와 삼자 사이의 관계를 변모시킨다고 하는데 관계되는 행위소에 따라서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 /의무/는 송출자와의 관계 시에 작동하고 /능력/은 반대자와의 관계가 문제 될 때 작동하는 것이다. 퐁타니유는 주체와 삼자와의 관계에 또 다른 양태성인 /지지(*adhérer*)/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양태성을 다시 차용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믿음에는 /지지/라는 새로운 메타언어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양태성의 수와 결합 방식에 따라 행위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나

11) *Ibid*, p.166. 술어를 중심으로 항가들의 수에 따라 통사구조를 설명하는 테니에르의 ‘작은 드라마 *petit drame*’를 연상하게 한다.

12) *Ibid*, p.170. 도표의 내용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어 도표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존재 방식에 따른 분류가 문제 되는데 /의지/와 /의무/는 잠재화된 양태성이라고 설명하는데 비해 도표에는 ‘현재화된’ 이라 기입하였다. /믿음/과 /지지/의 설명은 ‘가능화된’ 양태성으로 되어있고 도표에는 ‘현재화된’ 이라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지식/의 ‘현재화된’ 양태성은 ‘가능화된’이라 기입되어있다. 도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에 따라 도표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를 정념적 효과로 이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삼고 있어서 사사적 변형 과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담화의 생성과정을 발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므로 담화에 내재된 서사층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 기호-서사적 행위의 추동과 변형을 위한 양태성

기호학적 행위, 즉 서사적 주체의 행위를 촉발하고 변형에 이르게 하는 양태성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면 서사도식의 논리적 국면 속에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사도식은 파리학파 기호-서사학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서사적 변형의 통합체적 구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체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형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태성에 관한 연구는 그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서사적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사 주체의 행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태성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서사도식의 통사적 진행에서 양태성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양태성을 구분할 때 능력과 수행의 단계에서 배분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가지 양태성은 능력에 속하고 /행위/와 /상태/는 수행에 속한다.¹³⁾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사도식의 네 단계를 양태성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분하고자 한다. /의무/와 /의지/를 조종의 계약 단계에서 다루고 /능력/과 /지식/을 능력의 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송출자와의 계약을 통해 잠재적 주체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의무/와 /의지/의 양태성이 작동하고 수행을 위한 능력의 획득 과정에서 /

13) 엄격히 말해서 /행위/와 /상태/는 양태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폰타니유도 지적하듯이 /행위/와 /상태/는 양태성의 대상 술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마치 양태성이 작동하듯이 이들이 서로를 한정하는 양상으로 인해 이론의 초기 단계에서 양태성으로 정의되었던 것이다.

능력/과 /지식/이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구분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새로운 양태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양태성을 변모시키는 양태성이라는 /믿음/의 독특한 위상은 서사적 행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허용한다.

1. 계약과 양태성

서사도식의 조종 단계에서는 송출자와의 계약을 통해 잠재적 주체가 형성된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특히 계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분석이 표류하곤 한다. 이론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민담이나 신화에서는 송출자 역할을 하는 신적 존재나 왕과 같은 명시적인 행위자(acteur)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송출자와 수령자-주체간의 계약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이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텍스트가 분석의 대상으로 대두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다소 단순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는 추상적 존재가 행위자로 등장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레마스가 1966년에 『구조론적 의미론 *Sémantique structurale*』¹⁴⁾에서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송출자의 위치에 ‘역사’라는 추상적 단위를 위치시킨 것을 상기하면 쉽게 해결된다. 행위소는 역할로 정의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반드시 인물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 상기하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상적 단위가 송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석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분석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관적인 판단으로 추상적 단위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추상적이건 구상적이건 간에 송출자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주체의 행위자와 다르다면 /의무/의 양태성이 작동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의무/의 양태성이 외재적 차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외재하는 행위자의

14) Algirdas Julien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존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외재적 행위자가 수입하는 송출자 역할은 명령적 계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령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송출자의 위상과 /의무/의 양태성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분석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재적 양태성인 /의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주체의 내적 동기가 잠재적 주체의 구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양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주체의 내적 동기라는 일상적 표현은 이론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의 존재가 계약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는 과정이 선명하지만 주체의 행위는 언제나 명령 수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핍의 상황을 인지한 주체가 /의지/의 양태화를 통해 잠재적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적 계약이라 알려진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가 필요하다. 그레마스가 제안한 승인적 계약은 주체가 송출자에게 계약을 허락해 달라고 나서는 경우이다. ‘승인적’이라는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송출자의 승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계약에 대한 /의지/가 발동하는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외재하는 송출자의 가치 세계 안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지/의 양태성에 /의무/의 양태성이 동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예를 통해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접근하는 주체를 상상해보면 /의무/의 개입 없이 오로지 /의지/의 양태화만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지/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개입하는 양태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송출자와 같은 제 삼의 행위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지/의 양태성이 두 행위소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사례 분석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추상적 단위가 송출자로서 주체의 추구행위를 추동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에서 송출자를 찾기보다 주체와 객체 사이가 /의지/라는 양태성으로 묶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주체가 /의지/의 양태성을 통해 사랑의 추구 대상을 설정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서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의 양상을 이해할 때도 심층층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계약의 대상은 심층층위와 의미론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주체의 추구 대상의 형상적 단위와 /의지/의 양태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가 서사층위에서 추구하는 대상이 심층적 가치인 사랑으로 전환되는 점을 상기하면 이를 송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심층층위와 서사층위는 여전히 추상적 차원에 머물지만 서사층위는 상대적으로 구상적이고 담화층위의 행위자와의 연관 속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송출자의 구상적 단위를 찾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념에 근거를 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의무/와 /의지/의 양태성이 배타적으로 존재한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태성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의 정체성은 서사 행로를 거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을 통해 주체가 구성되고 능력을 획득하여 수행에 이른 주체의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변화 양상은 다양할 것이다. 그 과정을 파악하는 일은 양태성의 선택과 결합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떤 양태성을 통해 주체가 성립됐는지에 따라 주체의 정체성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계약의 단계에서는 주체가 자신의 가치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서사적 변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잠재적 주체가 성립되는 계약의 과정을 유인형태적(anthropomorphique)으로만 고려하면 구상적 단위에 매몰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소들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에 개입하는 양태성의 통사적 구성 가능

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효율적 분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서사적 주체의 능력을 보장하는 양태성

양태성을 능력의 단계에서 이해할 때 협조자와 반대자 개념의 해체적 계승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이론의 초기 단계에서 행위소모형의 주체는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자의 도움을 받거나 반대자의 방해를 겪게 된다. 그러나 두 행위소 역할이 임의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협조자와 반대자의 행위소는 점차 필요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주체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이 불필요해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협조자는 주체 능력의 외재화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협조자 역할을 수입하는 행위자의 구상적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행위자화는 다양한 구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티브 연구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동반된다. 협조자 역할을 수입하는 다양한 형상소를 나열하던 초기 이론을 상기하면 일반적 수준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양태성은 개념의 적절한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협조자의 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기호사각형의 논리에 따라 분화된 양태성은 주체와의 관계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체의 행위능력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자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주체의 수행에 대립하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반-주체의 위상이 부각 된다. 고유한 서사적 행로를 갖지 않는다는 반대자를 한계짓는 역할이 반-주체의 능동적 행위소로 전환되는 것이다. 닫힌 체계 안에서 동일한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반-주체는 반대자의 수동적 위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자의 본래적 역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가능성은 반-주체 역시 자신의 협조자를 갖는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주체의 능력의 외재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면 반-주체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반대자의 역할을 모순 없이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양태성의 부재 또는 부정적 양태성의 개념으로 반대자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다. 이는 반-주체의 개념 도입과 충돌 없이 주체의 행위를 방해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수행의 성공은 긍정적인 양태적 능력을 전제하는 반면에 실패는 양태적 능력의 부재를 전제한다. 다시 한번 닫힌 체계의 반-주체를 떠올린다면 주체의 실패는 반-주체의 성공을 의미하고 그의 양태적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점을 상기할 수 있다. 결국 양태적 능력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과거에는 협조자와 반대자의 행위소 역할로 설명했던 것이다. 두 주체 사이에 개입하는 다양한 능력의 변화는 기호사각형의 논리에 따라 분화된 다양한 양태성이 보다 심층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행위소와 행위자의 관계가 구상적 단위를 상상하면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면 양태성은 오로지 서사층위에서 논리적 관계를 설명한다는 이론적 장점을 갖게 된 것이다.

능력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양태성의 위상은 비교적 명백하다. /능력/과 /지식/ 역시 외재적과 내재적이라는 구분에 따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능력의 획득 과정은 잠재적 주체가 현실적 주체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다. 양태적 능력의 존재와 부재에 따라 주체의 수행이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된다. 물론 능력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수행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새롭지 않은 사실이다. 수행의 결과로부터 능력의 존재나 부재를 판단하는 것이 분석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양태성의 특성에 따라 수행의 양상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앞서도 지적한 행위소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능력의 단계에 개입하는 양태성에서 실행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과 /지식/을 외재적과 내재적 구분에 덧붙여 두 양태성을 정의하는 또 다른 구분 기준이 개입되는 것이다. 주체의 수행은 오로지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초기 이론에서 사사층위를 실행의 기호학이라 불렀던 점을 상기하

면 실행적 차원의 능력이 중요한 양태성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사 행로가 다차원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인지적 차원이나 정념적 차원이 주체의 서사 행로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념적 차원은 마음의 상태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물의 변화를 다루는 서사적 변형과는 분리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사적 변형에 개입하는 양태성의 지위는 실행적 차원의 /능력/과 인지적 차원의 /지식/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실행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의 교차적 또는 조합 상황이 주체의 능력을 구성한다.

/능력/은 외적으로 획득되는 실행적 차원의 양태성이고 /지식/은 내적으로 획득되는 인지적 차원의 양태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두 양태성의 이러한 이중적 속성은 주체가 수행에 나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능력을 확보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더불어 계약의 단계에서 주체 형성에 참여했던 /의무/의 외재적 속성과 /의지/의 내재적 속성과의 결합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드시 외재적 양태성들끼리 조합되고 내재적 양태성끼리 조합된다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조합 양상이 주체의 서사적 행위의 통사적 다양성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다.

3. 양태성을 초한정하는 양태성

위에서 살펴본 /믿음/의 양태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상으로서의 양태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서사적 주체의 행로에서 이 양태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믿음/의 양태성은 네 가지 양태성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네 가지 양태성이 /행위/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믿음/은 그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믿음/만으로는 서사적 변형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믿음/이 언어학의 기술 동사에 비유되는 /행

위/나 /상태/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양태성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폰타니유는 행위소의 양태적 정체성을 양태성의 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하나의 양태성을 갖는 경우는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화된 양태성이 차지하고 두 개의 양태성을 갖는 경우는 현실화된 양태성과 더불어 잠재화된 양태성이 개입한다. 세 개의 양태성을 갖는 경우어야 /믿음/의 양태성이 등장한다.¹⁵⁾ 이런 사실에서도 /믿음/의 양태성이 다른 양태성과 맺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레마스는 /지식/과 /믿음/이 모두 인지적 차원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믿음/의 양태성은 대상과 인식 주체의 관계를 맺어주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지식/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규명에 초점을 둔다면 /믿음/의 경우에는 이들 관계에 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¹⁶⁾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경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른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이다. /믿음/의 양태성은 대상에 대한 측면 뿐만아니라 상호주체적 측면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폰타니유가 이를 발전시켜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믿음/의 양태성이, 주체와 삼자 사이에 /지지/가 개입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양상에 대한 다른 주장을 베르트랑 Denis Bertrand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인지적 행위의 주체는 해석의 수령자일 수 밖에 없는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송출자의 설득행위를 해석하고 계약에 이를 때 수령자-주체가 ‘송출자의 믿음직함(*crédibilité*)’, ‘가치 대상의 신뢰도(*fiabilité*)’, ‘수령자의지지(*adhésion*)’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¹⁷⁾ 행위소들 간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보면 베르트랑의 주장 역시 폰타니유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계

15) *Op. cit.*, pp.172~174.

16) *Op. cit.*, pp.117~122.

17) Denis Bertrand, “Confiance politique et fiducia”, in *Métier de la sémiotique*, edited by J. Fontanille & G. Barrier, PULIM, 1999, pp.48~49.

약의 상호주체적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메타언어의 차이를 만들 뿐이다. 결국 /믿음/의 양태성이 어떤 관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메타언어의 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서사도식에서 /믿음/의 양태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신뢰의 문제는 서사도식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송출자와 주체 사이에서 계약이 맺어지고 주체의 수행 이후에 이 계약을 바탕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두 행위소 사이에는 모종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체는 송출자의 제안을 해석하고 송출자,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야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송출자는 주체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보상의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서사도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믿음/의 양태성을 도입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조종의 계약 과정에서 발견되는 상호주체적 특성은 서사행로에서 두 양태성이 작동하는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송출자와 수령자-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을 신뢰의 계약이라 부르는 것도 두 행위소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주체적 신뢰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은 서로가 주고받게 될 대상에 대한 /믿음/과 다른 행위소에 대한 /지지/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계약의 과정에서 /믿음/의 양태성은 /의무/ 또는 /의지/의 양태성을 변모시킨다. 결국 /믿음/이라는 양태성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믿음/ 또는 /지지/의 부재는 계약 상대자 또는 그의 담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의지/의 양태성에도 개입해서 잠재적 주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행위자와 두 행위소 역할의 중합(syncrétisme)을 통해서 발생하는 계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양태성은 재귀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에 대한 /믿음/이 주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능력의 단계에서 주체가 획득하는 /능력/과 /지식/의 양태성을 한정하는 /믿음/은 직접적 인식에 기반을 둔다고 하지만 주체가 대면하게 되는 반-주체의 /능력/과 /지식/은 간접적 인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믿음의 상호주체적 양상이 부각 되는 것이다. 주체의 수행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자신의 양태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지만 반-주체의 역량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믿음/의 상호주체적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반-주체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닫힌 체계에서 연접과 이접의 동시적 변형을 겪게 되는 상호주체적 양상을 전제하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양태성은 대립하고 있는 두 주체가 자신의 양태적 능력과 다른 주체의 양태적 능력에 대해 상호적으로 인식하고 수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믿음/의 관계 유형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믿음/과 /지식/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담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주체의 수행은 능력을 전제하는데 능력의 변주 여부만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주체의 수행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인상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능력/ 또는 /지식/의 이러저러한 분화에 따라 주체의 수행 여부가 설명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인지적 판단을 하게 된다. 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면 서사문법의 유인형태적 특성이 좀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믿음/이 /능력/을 선행할 경우에 주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믿음/에 영향을 받아 수행으로 이행하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주체는 임무에 단호하게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기호사각형의 분화에 따른 각 항들과 /능력/의 다양한 조합이 주체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지식/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능력/과 /믿음/의 연관성과 구조적으로 상동적이라 할 수 있지만 /믿음/과 /지식/의 관계는 오로지 인지적 차원에 위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지적 차원의 /지식/만으로는 수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과학적 담화 또는 철학적 담화에서는 수행이 인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으나 실행의 기호학 영역에 머문다면 /지식/과 /능력/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식/이 /능력/에 종속된다. 기본프로그램에 종속되는 하위프로그램의 관계를 상기하면 /능력/이 /능력/에 종속되는 상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프로그램이 기본프로그램에 삼중의 종속적 관계를 맺는다면 /능력/과 /지식/의 획득 과정이 몇 가지 가능성으로 분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태성은 서사도식의 조종과 능력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서사적 행위가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입한다. 서사도식의 구조적 이해는 주체가 겪는 결핍과 그것의 해소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행위가 추동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태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IV. 결론

기호-서사학 이론의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하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서사적 변형을 설명하는 서사도식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주체가 계약을 맺고 능력을 획득해 수행에 이르는 과정이 환원적으로만 이해된다면 분석의 결과는 매우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주체의 서사적 행위는 다소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구조의 통합적 사행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 양태성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담화의 서사층위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변형에 초점을 두고 양태성의 작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양태성 개념의 발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본 연구와 같은 소논문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주제를 한정해서 양태성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텍스트의 분석에서 양태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정리에 목적을 둔 것이다.

양태성의 연구가 구축해놓은 성과의 활용 가능성은 다소간의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내적 논리의 복잡성이 활용 가능성을 방해하는 인상마저 받는다. 그러나 주체의 행위가 촉발되고 진행되는 양상이 단지 몇 가지 가능성만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질 때의 장점을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이론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표층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이론의 활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양태성이 서사도식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민음/의 양태성을 보완하면서 분석의 효율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적어도 기호학적 행위가 양태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분석에서 양태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Bertrand Denis, “Confiance politique et fiducia”, in *Métier de la sémiotique*, edited by J. Fontanille & G. Barrier, PULIM, 1999.
- Fontanille Jacques, *Sémiotique du discours*, Limoges, PULIM, 1998.
- Greimas Algirdas Julien,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 _____, *Du sens II*, Paris, Éditions du Seuil, 1983.
- Greimas Algirdas Julien et Courtés Joseph,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9, rééd. 1993.
- _____,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tome 2, 1986.

Semiotic Action and Modalities

Song, Chi-Man

The semio-narrative structure of the school of Paris has developed through repeated revisions and supplements of theories, and the concept of mod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its history. As Greimas argues,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grammar is in line with the concept of modalit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narrative schema and modality, which occupies the core of the narrative level of the generative trajectory, is a prerequisite for narrative analysis of various genr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 modality works in the level of manipulation and competence of narrative schema, and to consider ways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practical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s of various actants develops into various narrative actions through moda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narrative action and applying it to analysis was expanded as the modality of /believing/ was added to the modalities of /having to/, /wanting/, /being able/, /knowing/ of the early theory. In the contract, we looked at the ways in which the modalities of /having to/, /wanting/ affect the composition of the subject and the change of identity, and pointed out the parts that the existing theories overlooked. In the process of competence, the modalities of /being able/, /knowing/ was suggested a way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theory, and tried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analysis. Only the mutual understanding of narrative schema and modalities guarantees not only the completeness of the theory but also the efficiency of analysis.

Keywords : Narrative schema, Modality, Semiotic action, Contract, Competence

투고일: 2021. 02. 22./ 심사일: 2021. 03. 12./심사완료일: 2021. 03. 12.